

재일동포 소설가 유미리씨 작품 두권 출간

평생 직장이란 말 없이 지내고 있던 가족도 붕괴되고 있다.
속명적으로 여겨지던 가족간의 관계가 이제 간단한 이유 하나로 말짱히 서지고 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은 비수비수 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천지안별'이라는 말과 같이 완만해 떨어지는 불행한 가정들을 이리저리 둘러보게 하면서 결국 배려가 떨어지는 가족간의 관계와 사랑을 되새리게 한다.



가족간 사랑과 생명에 대한 가슴 뭉클한 고백

민음사에서 펴낸 '가족 스캐너' (김난주 옮김 · 8천원)은 유씨가 2년간 '주간 아시아'에 연재한 가족에 대한 콩트 같은 산문 66편을 모아놓은 것. 결혼·이혼·재혼·별거·불륜의 한가운데 있는 가족, 경제적인 문제, 노인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가족, 일 중독자·예저가·구두쇠가 있는 가족, 의사소통 단절과 소외로 살고 있는 가족 등 지금 붕괴되고 있는 가족상을 스케치하듯 그려 놓고 있다.

죽어가는 유부남의 아이를, 그 사랑을 향한 사랑과 생명 의지 하나로 출산하는 미혼모의 이야기를 다룬 유씨의 자전적 소설이다.
"지금 내 손가락 사이에서 시간의 모래가 새어나가고 있다. 물과 하늘과 수목 같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생활 속의 1초 1초가 내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시작했다.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모래시계. 내내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 때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현상일까? 나는 그 한참 한참에 눈길을 주며, 한참 한참이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정부가 시시각각 죽음을 향하는 것을 바라보는 작중 주인공, 즉 유씨의 심정을 드러낸 마지막 부분이다.

처녀와 유부남과의 내밀한 불륜을 마치 얼기 싣듯 책나라하게 공개한 점, 또 딸기맛으로 죽어가는 사랑을 향한 헌신적 사랑과 그 사랑을 잇기 위한 출산 등 통속적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작품은 사랑과 생명에 대한 처절한 내면 고백 소설로 일한다.

특히 모래시계 같이 한참 한참 빠져가는 우리의 삶에서 영원 같은 것은 추구하지 않고 때 순간순간을 영원처럼 살아가려는 신세대적 세계관의 한 정점도 드러났다. 유씨는 이러한 가치관으로 '생명' 표지에 아들을 안고 있는 시집마저도 과감하게, 상업적으로 싣고 있다.
이경철 기자
<bacchus@joonsang.co.kr>



미혼모로서 양태와 출산 등 자신의 처절한 사랑을 작품화한 유미리씨.

월드 리포트

얼마 전 베이징(北京)의 메서튼 겨울 바람을 뚫고 중국인 작가 한 명이 베이징의 기자 사무실을 찾아왔다. 손에는 원고와 원뿔통이 들려 있었다. 주제는 반(反)부패, 돈과 권력, 색(色)이 어우러지는 중국 사회의 부패상을 심감나게 그렸지만 출판사를 찾지 못해 고민이라니 허소연했다.

월드 리포트

오정(李高成)이 도시에 있는 중앙(中陽) 방직그룹의 부패 문제를 조사하면서 서 겪는 고뇌를 다룬 것이다. 주인공은 이 거대한 국유기업의 부패 뒤에 자신의 오랜 부하들은 물론 절친같이

중국의 장쩌민(江澤民)주석이 정치국 상임위원들을 이끄는 영광을 관망한 뒤 이틀만 정치국 회의에서 "철저하게 부패를 척결하자"고 선언한 당도 국가도 모두 망한다"며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밝혔을 정도다.

장정은 이 작품으로 최근 신시성 작가로서 처음으로 중국 최고의 문학상 중 하나인 마오둔(茅盾)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인민 작가'라는 칭호까지 받았다.

5년여 전만 해도 반부패 작품을 쓰는 것은 사실 위험천만할 일이었다. 그러나 올해 장지(江澤民)의 부성장 후장정(胡錦濤) 등이 잇따라 부패 혐의와 사형에 처해지는 등 전례 없는 부패척결 바람을 타고 소설 역시 개화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의 원인이 워낙 단순한 데다 중국 정부도 침사리 물러날 기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scyou@joonsang.co.kr>

울 중국 서점가 반부패 작품 바람

만졌던 아내까지 가담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들과 처절한 사상·도덕·영혼의 충돌을 벌인다.

작가는 주인공이 결국 추호의 용서도 없이 부패를 척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지난 8월 초 '생사의 선택(生死的抉擇)'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출판사서 번역의 質 신의를 300종 넘게 의뢰받아"

국내 첫 번역회사 설립 양원근씨



본 출판번역에 국한된 것이고, 이른 바 산업번역 시장이 훨씬 크다. 그에 따른 각종 수임상품들의 사용성 면서 번역을 다루는 산업번역 분야는 연 2조원의 규모, 번역의 또 다른 영역인 미디어 번역(영화·비디오 자막)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양이다. 양원근은 3개 영역 중 가장 정교함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출판번역 시장에 지난 1997년 기업 형태로 뛰어든 최초의 인물. "지난해 출판사로부터 의뢰받은 단행본 총수(種數)가 2백50종이다. 올해는 3백여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출판사, 번역가 사이에 알뜰함이 연결되면 번역의뢰가 시스템화 될 수는 있다. 물론 엔드코퍼레이션의 번역의 질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됐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엔드코퍼레이션의 신화에 인터넷 번역 교육 기관인 '트랜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우석 기자

국내 단행본 중 영어·일어로 된 외서(外書) 번역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선. 시장 면에서 국내 저작물 이상 가는 비중을 갖는 것이 번역사이다. 하지만 국내 출판계의 숙제인 번역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번역양국 일본"의 출판물 따지는 존재인 신뢰할 만한 번역역원 "비밀"같은 교육기관의 설립 같은 구조적 방안 말이다. 사정이 그러한데 "번역 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해준 이도 많지 않다. 국내 유일의 단행본 번역회사 주목받고 있는 '엔드스코퍼(www.entrescore.com)'의 대표 양원근(36·사진)에게 물었다니 급세 답이 나왔다.
"번역가에게 지급되는 액수를 기준으로 봐도 한해 원고료의 총액은 약 3천억원 수준이다. 2백여 원고자 장당 1천-2천원 할 정도의 고료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먼 시할 수 없는 수치다. 그것이 단행

영원한 내적

양원빈(楊文彬)의 '영(影)의 담원 원외 서기', 무이린(柳宜琳)의 '생사문(生死門)', 무엔밍(陸天明)의 '대설무흔(大雪無痕)', 비쓰하이(畢淑敏)의 '재부(財富)와 인생', 천노(天諾)의 작가 천량(陳亮)이 쓴 1백80만자의 '도시장막(都市格鬥)' 등 수많은 반부패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표작인 작품이 신시(申錫)의 중년 작가 정평(張平·45)이 쓴 소설 '열매(狹窄·선택)'이다.

어린이

◇괴상한 내적(남천수 지음, 한신출판사) 장작과 비평가, 6천원)은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독백을 통해 집단 따돌림 문제를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면면을 다뤘다. 초등학교 고학년용.
◇정문으로 들어온 선물(고미 지음, 그림, 이흥과 옮김, 비룡소, 8천원)은 활기를 탄 산다. 정문 5백여 가지 구멍을 뚫어 빛깔과 형태와 색깔이 아이마다 등이 다르다. 만2세 이상.
◇우리나라 전래동화·동시(김원희 지음·이향주 그림·파란새이름이·7천5백원)은 교과서에 나오는 전래동화와 동시를 엮은 것이다. 유래 등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다.
◇임야, 문화혁명기(박희상 지음, 한가람, 6천원)은 조동현의 중국·몽골·미국 여행 일기, 사물을 보는 관점과 표현력이 어필되고 뛰어나다.

경제·경영

◇중국의 시장과 기업(정구원·염구로 엮음, 나남출판, 1만2천원)은 경영 대상으로서의 중국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모색한 동북아 포럼의 연구 결과물.
◇재주라는 시명이 성공한다(나카타니 아키히로 지음, 이선출판, 6천원, 7천원)은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재주' 시집의 저자가 '재주'의 무궁무진한 체험을 단단하지만 두 번째로 실게 열었다"를 2번째까지 성공포인트를 전한다.

문학

◇신인 월 낚시 1·2(제철도 매사니에 지음, 최경란·최혜란 옮김, 그린 5천원)은 '사람의 아들' 여수의 삶을 다룬 화제의 소설. 총 7권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괴상한 내적(남천수 지음, 한신출판사) 장작과 비평가, 6천원)은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독백을 통해 집단 따돌림 문제를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면면을 다뤘다. 초등학교 고학년용.
◇정문으로 들어온 선물(고미 지음, 그림, 이흥과 옮김, 비룡소, 8천원)은 활기를 탄 산다. 정문 5백여 가지 구멍을 뚫어 빛깔과 형태와 색깔이 아이마다 등이 다르다. 만2세 이상.
◇우리나라 전래동화·동시(김원희 지음·이향주 그림·파란새이름이·7천5백원)은 교과서에 나오는 전래동화와 동시를 엮은 것이다. 유래 등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다.
◇임야, 문화혁명기(박희상 지음, 한가람, 6천원)은 조동현의 중국·몽골·미국 여행 일기, 사물을 보는 관점과 표현력이 어필되고 뛰어나다.

책꽃이

Advertisement for 'The Cat Changes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이야기) featuring a cat illustration and promotional text for JAKKA CO. KR. The ad highlights the book's theme of a cat changing the world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